

南平文氏 始祖神話의 研究*

서 해 숙(전남대)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역사화 과정과 그 의미 |
| II. 서사구조 분석 | V. 맺음말 |
| III. 전승의 맥락 | |

I. 머리말

남평문씨¹⁾ 시조는 文多省으로, 문다성의 탄생에 관한 신이한 내용이 남평문씨 시조신화이다. 문씨가 역사에 나오기는 고려 현종 때 부터라 하는데, 문다성은 신라 20대 자비왕 때 지금의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에서 태어나 신라시대에 벼슬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족보와 성씨 관련 자료에 자세하게 수록되어 전한다.³⁾ 시조의 경이로운 탄생을 다른 어느 성씨에 비해 활발하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5-B20011)

- 1) 문씨는 남평문씨 외에 감천문씨와 정선문씨가 있다. 감천문씨는 원래 김알지 후손인 경주김씨였으나 중국에서 文名을 날림으로써 文姓을 賜姓 받고 문씨로 改姓 하였으며, 정선문씨는 원래 쏜씨였는데, 이 역시 감천문씨와 같이 중국에 들어가 文名을 날림으로써 文姓을 사성받은 것이라 한다. (『한국성씨대관』, 서울: 창조사, 1971, 64쪽)
- 2) 『남평문씨대동보』 본문에는 문다성을 ‘字明遠號三光金紫光祿大夫三重大匡輔國上柱國同平章事三韓壁上功臣南平開國伯食邑三千戶享年九十八諡武成 夫人金氏新羅王孫號貞順神毅 按丙辰創譜書三韓壁上二等功臣辛亥始譜詳細書之如是’이라 적고 있다.
- 3) 이러한 점은 후술할 파평윤씨 시조신화나, 하음봉씨 시조신화 등의 신화에서도 드러나지만,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남평문씨대동보』를 비롯하여 『한국인의 족보』(서울: 일

게 기록하고 있는 점은 씨족집단의 신화에 대한 인식 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남평문씨가 중국에서 건너온 外來姓이 아닌 지역적 토대 위에 발현한 土姓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姓氏는 신라 왕족에 근원을 두거나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 하거나 중국 왕이 賜姓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남평문씨 시조는 오히려 남평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신이하게 태어났음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 신화적 문맥 외에 역사적, 지역적 카테고리 속에서 이러한 맥락을 해석할 수 있다. 후대의 기록인 『世宗實錄地理志』에 南平縣의 土姓으로 문씨를 비롯한 여섯 개의 성씨를 지역적 토대 위에 발현한 성씨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평문씨 시조신화처럼 시조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得姓하기까지의 일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씨시조신화는 성씨 범위라는 제한된 전제 아래 씨족집단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신화이다.⁴⁾ 성씨시조신화는 氏族神話나 建國神話에서처럼 본질적으로 시조의 생명에 대한 물음을 통해 나의 생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씨는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單系 혈연집단의 한 명칭이며, 곧 씨족적 관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는 데서 결국 族의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⁵⁾

그 동안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소략적이기는 하나 문학적 의미를 밝히는 차원에서 어느 성씨시조신화에 비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⁶⁾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후손들의 지속적인 기록을 통해 오늘날

신각, 1977, 456쪽), 『한국성씨대관』(서울: 창조사, 1971, 649쪽) 등에 일관되게 기록되어 전한다.

4) 줄고,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9쪽.

5) 族과 祖의 의미를 세밀히 파악할 때 族은 혈연 중심을 탈피한 인위적으로 개념으로 古代로 올라갈수록 그 개념이 강화되지만, 祖의 개념은 철저한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유교의 도입된 조선시대 이래 더욱 강화된 개념이다.

6) 허경희, 『한국씨족설화연구』, 전남대 출판부, 1990, 149~151쪽.

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실출판사, 1988<2판>, 21~3쪽.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60쪽.

에도 신화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특히 근래에 들어 시조에 대한 聖域化, 歷史化 작업들은 시조신화에 대한 문학적 의미 외에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재조명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성씨의 근원을 찾는 동시에 始祖와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에 있을 후손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어주는 등, 오늘날 시조신화로 기능하기까지 일련의 역사화 과정을 考究함으로써 여느 성씨시조신화와는 상호관련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나아가 건국신화와는 대별되는 성씨시조신화만의 특징과 의미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선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문학적 의미와 상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연원을 古代에 두고 있으면서 오늘날까지 후손들에 의해 신화적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대의 씨족신화와의 비교를 통한 전승의 맥락을 더듬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지금까지 신화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불어 문중에 의해 적극적으로 역사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관한 문헌자료와 관련 내용 검토를 통해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역사화 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Ⅱ. 서사구조 분석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기록하고 있는 자료로 우선 남평문씨족보를 들 수 있는데, 비교적 족보 간행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현종 12년인 1846년에 간행한 남평문씨족보에 시조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다.

世乘에 이르기를 시조는 남평군에 있는 큰 언뚝 바위 위의 석함 가운데에 강림 하셨다고 한다. 이 때에 상서로운 자색 기운이 나타나자 신라 왕이 그것을 살펴보고 기이한 징조라 여겨서 그곳의 수령에게 거두어 기르도록 하고 문씨 성을 내렸

표인주, 『남도실화문학연구』, 민속원, 2000, 58~61쪽

다.(함의 면에 붉은 글씨로 '文'이라고 쓰여 있었던 까닭이다.) 이로써 남평문씨가 시작되었다. (삼우당실기에 보인다.)

姓苑에서는 세상에 전하기를 남평군 동쪽에 커다란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바위가 갑자기 10丈(丈)이나 일어섰다고 한다 어느 날 군주가 강 위에서 노닐다가 홀연히 자운이 바위 위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그 가운데 어린아이의 은은한 울음소리를 듣고서 군주는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다. 즉시 군주는 사람들을 시켜 배를 대어 바위 위를 올라가 보니 석함이 첩끈으로 묶여 있었다. 내려서 열어보니 그 안의 어린아이는 옥같이 흰 피부에 접눈동자, 그리고 용의 코를 가진 특이한 모습이 었다. 거두어 기르고 인하여 문으로 성을 내리고 다성으로 이름을 삼고 명원으로 자를 썼다.⁷⁾

위 기록과 연결선상에서 1995년에 발행한 남평문씨족보를 살펴보면 이 역시 시조에 관한 신화가 상세히 실려 있다.⁸⁾ 두 족보는 150여 년의 시간 차이를 보이지만, 시조에 대한 기록은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전승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족보 외에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언급한 자료로는 『한국인의 족보』를⁹⁾ 들 수 있는데, 거기에는 왕과 縣主 두 사람이 등장하여 남평문씨 시조의 신이한 탄생을 목격하며 아이의 용모에 대해서는 ‘엄한 아이’라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성씨대관』에는¹⁰⁾ 군주가 石函을 확인하고 있으며, 아이의 용모에 대해서 ‘피부가 玉雪같이 맑고 용모가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 부분적으로 기록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7) 世乘云 始祖降于南平郡大澤之巖上石函中 時有紫氣之祥 新羅王望之以爲異兆 使縣主收養之 賜姓文氏(函面有丹書文字故) 是爲南平文氏之始 (見三憂堂實記) 姓苑云 世傳 南平郡東有大澤 澤畔巖有斗起十丈 郡主一日游於江上 忽有紫雲融聚於巖上 其中有嬰兒之聲隱隱 而來郡主心異之 即令構架使人登視之 有石函以鐵索繫之 而兜下開視之中有小兒肌膚玉雪重瞳龍鼻容貌奇異 收養之 因以文賜姓多省爲名明遠爲字. (『南平文氏族譜』, 文氏封賞事蹟, 현종 12년, 1846)

8) 世說湖之南有南平郡 郡之東有大澤 澤畔有巖屹立千丈 君主一日遊於其下有五雲融聚於巖上忽聞嬰兒之聲隱隱而來君主心異之即令構架使人登視之有石函以鐵索繫之而堯下開函視之中有小兒肌膚玉雪容貌奇異遂養之年甫五歲文思自然通達武略 迢邁聰明穎悟達於事物之理故因以文爲姓多省爲名. (『南平文氏大同譜』, 南平文氏始源記, 1995)

9) 『한국인의 족보』(서울: 일신각, 1977), 456쪽.

10) 『한국성씨대관』(서울: 창조사, 1971).

이 가운데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전하며 신화적 내용에 충실한 『한국인의 족보』을 토대로 최소의 서사단위로 분절하면 다음과 같다.

- ㉠ 전남 나주 남평면 동쪽 長者池에 큰 바위가 있다.
- ㉡ 長者池에서 紫色의 瑞氣가 있어 왕이 縣主를 시켜 살피게 하다.
- ㉢ 바위 위에 五雲이 감돌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다.
- ㉣ 바위 위 석함 속에 용모가 엄한 아이가 들어 있다.
- ㉤ 왕은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내린 것이라 기뻐하며 궁중에서 양육하다
- ㉥ 다섯달이 되니 文武가 빼어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多省’이라 이름 짓다.
- ㉦ 석함 면에 ‘문’이라 써여 있어 姓을 文씨로 정하다
- ㉧ 가물어도 마르지 않은 長者池와 바위가 남아 있다.

이상,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8개의 서사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엇보다 시조의 탄생과정이 이야기 전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김알지신화에서 김알지가 탄생하기 전 여러 징조를 보인 뒤 금궤에서 나온 아이가 훗날 새로운 성씨집단으로 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¹¹⁾ 남평문씨 시조신화와 유사한 서사구조를 갖는다. 위의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전개과정은 시조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시부, 본담부, 증시부로 나눌 수 있다. 시조가 탄생하기 전의 징조를 보여주는 ㉠~㉢은 豫示部에 해당하며, 징조에 이어서 아이가 탄생하고 왕에 의해 양육되는 ㉣~㉥이 本談部, 그리고 시조의 탄생으로 인해 남평문씨라는 새로운 성씨집단이 출현을 예고하는 得姓과 그에 관한 증거물이 제시되는 ㉦~㉧은 證示部에 해당된다.

이야기 서두에 전남 나주 남평면 동쪽의 長者池라는 연못에 큰 바위가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지명과 장소가 언급되어, 장차 남평문씨 시조가 태어날 장소로 암시된다. 장자지에 紫色의 瑞氣가 있어

11) 永平三年庚申[一云: 中元六年, 誤矣. 中元盡二年而已.], 八月四日, 瓠公夜行月城西里, 見大光明於始林中[一作鳩林], 有紫雲從天垂地, 雲中有黃金櫃, 掛於樹枝, 光自櫃出, 亦有白鷄鳴於樹下, 以狀聞於王, 駕幸其林, 開櫃有童男, 臥而即起, 如赫居世之故事, 因其言, 以闕智名之, 闕智即鄉言小兒之稱也, 抱載還闕, 鳥獸相隨, 喜躍踴躍, 王擇吉日, 冊位大子, 後讓故於婆娑, 不即王位, 因金櫃而出, 乃姓金氏, 闕智生熱漢, 漢生阿都, 都生首留, 留生郁部, 部生俱道, 一作仇刀, 道生未鄒, 鄒即王位, 新羅金氏自闕智始 (『三國遺事』卷第一, 紀異 第一, 金闕智脫解王代)

왕이 현주를 시켜 살피게 했다. 그랬더니 바위 위에 五雲이 감돌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못과 바위의 신화소는 박혁거세신화와 김수로신화에서 논의된 禊浴과 岩石에 대한 기자의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거나 못은 물의 상징이고, 바위는 땅의 상징으로서 음양이 相合하는 현상으로 水神과 地神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氏祖임을 뜻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¹²⁾ 한편 ‘장자못은 지상신의 혈통을, 五雲은 천상신의 혈통을 밝혀주는 것이며, 바위는 지상신과 천상신의 매개물로 보고서’¹³⁾ 천상신과 지상신의 결합에 의해 남평문씨 시조가 탄생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한 장자못과 바위가 시조신의 탄강지로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장자못 전설의 신화적 원형성을 입증해 주는 사실로 보기도 하였다. 神婚象徴으로 나타나지 않고 옥함 속에 든 아기 神格의 출현인 점에서 후대적인 변이가 확인되지만, 원래부터 있어오던 地神系 神話의 잔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왕에 의해 발견되고 그 왕권을 위해 立功하는 영웅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天神系의 神的 질서에 화합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¹⁴⁾ 곧 장자못과 五雲은 水神的인 의미와 天神的인 의미를 가진 神話素로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기보다는, 상호결합되어 천신계에 화합하는 창조적 관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장자지와 바위에 자색의 瑞氣가 있고 五雲이 감도는 것은 장차 태어날 아이의 신성함을 표현하는 징표이자, 아이가 세상에 놓여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곧 인간 생명의 근원을 하늘에 두는 가운데 하늘과 땅이 合一을 이루고 있어, 그로 인해 장자지는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는 신화적 공간으로 전이된다. 바위 역시 이제는 그 이전의 바위와 다른, 영웅이 태어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바위로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자색의 서기와 五雲은 분명 비일상적인 징조이며 신이한 징조로, 장차 태어날 아이의 비범성과 영웅적인 면모를 은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12) 허경희, 앞의 책, 150~151쪽.

13) 표인주, 앞의 책, 59쪽.

14) 천혜숙, 앞의 논문, 60쪽.

이러한 징조를 발견한 이는 왕이다. 그래서 왕이 縣主에게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다. 경주김씨 시조신화에서는 호공이 기이한 징조를 목격하고 이를 왕에게 아뢰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에서는 縣主는 단지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인물임에 반해, 왕은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는 상황을 직감하는 혜안을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왕은 새로운 인물의 탄생을 추구하는 듯 적극적이다.

예시부에 이어 본담부에서는 석함 출현과 得兒 그리고 養育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징조에 이어 바위 위 석함 속에는 용모가 엄한 아이가 들어 있다. 紫色의 瑞氣와 五雲은 결국 석함의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석함은 경주김씨 시조신화에서의 금궤, 그리고 석탈해신화의 목궤, 삼성신화의 목함¹⁵⁾와 같은 類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채 천지의 조화에 의해 아이가 이 세상에 바쳐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계가 도래함을 의미한다. 아이가 태어나자 왕이 하늘이 나를 돕기 위해 아이를 내린 것으로 기뻐하는데, 이는 천지의 화합에 대한 인간적인 믿음인 것이다.

왕은 아이를 거두어 궁중에서 양육한다. 아이가 다섯 살이 되니 文武가 빼어나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多省’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시조 이름을 짓게 된 경위를 통해 시조의 비범함과 영특함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대목이다. 특히 석함 속에 들어 있는 용모가 엄한 아이를 발견하고 양육하여 성씨를 부여하는 왕은 인간세상을 대변하는 대행자이면서 이 세상을 주도할 영웅적인 인물의 탄생을 갈구하는 존재이다. 이처럼 아이의 존재가 왕에 의해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는 내용은 여느 성씨시조신화에서도 나타난다. 건국신화에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존재 의의를 부여한 반면에 남평문씨 시조신화에서는 왕이 전반적으로 개입되어 있어, 왕권을 인정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신화적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만큼 건국신화에 비해 축소된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비록 혼인, 이적, 죽음 등은 생략되어

15) 『高麗史』 57권 지리 2, 나주목 탐라현.

있어 건국신화와는 대별되는 성씨시조신화의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만, 시조의 특출함을 보여주는 이 서사단위는 영웅일대기적 삶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듯 하다. 이미 문다성은 역사적 인물로 그려
지기 때문에 탄생에 이어 혼인, 이적, 죽음 등에 관하여 더 이상
신화적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탄생에 관한 신이한 모
습은 문다성의 신이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그의 탄생으로 인해 새로운 성씨집단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그 후손들은 다른 씨족집단과 변별되는 인식을 갖기 때
문에 탄생에 집중되어 기록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담부에 이어 證示部에서는 성씨 시조와 관련된 증거물들을 나열
하고 있다. 우선 성씨의 유래를 밝히고 있는데, 석함 面에 ‘文’이
라는 글씨가 쓰여 있어 이를 근거로 姓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
리고 오늘날 이러한 시조신화에 연원을 두고 있는 남평문씨 후손
들이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물이 된다. 증거물 제시는 전설의 성
격을 반영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증거물을 통해 문중과 후손
을 결집하는 매개체 구실을 하고 있다. 또한 김알지신화에서는 알
지가 금궤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金으로 삼고 있음에 반해, 남평
문씨는 석함 面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 것에 의거하여 성씨를 삼고
있어 성씨 유래를 절대적이고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어
떤 형상에 의해 성씨를 삼았다는 것과는 달리 하늘이 제시해주는
것에 따라 성씨로 삼고 있다. 특히 석함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절
대불변의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롭게 형성된 문씨 씨족집단
의 불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성씨
부여 외에 오늘날에도 마르지 않은 長者池와 바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은 성씨시조신화의 사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
하면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영원불멸성을 또 한번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문다성이 태어난 시기는 신라 자비왕 때인데, 이 당시의 남평 이
름은 미동부리로 백제 땅이었다.¹⁶⁾ 당시 백제 개루왕은 고구려의

16) 남평은 백제 때 무진군의 속현인 미동부리현이었고, 신라 경덕왕 16년(757) 12월에
玄雄縣이 되고 고려 성종 2년(983) 2월에 남평현이라 했으며, 한 때 나주목에 편입되

공격을 받아 신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으나 문다성이 활동했음직한 500년대에는 신라와 백제 사이의 싸움이 잦았다. 그런데 남평에서 태어나 신라의 벼슬을 살았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더구나 이 고을 이름이 남평이 된 것은 고려 때인데도 불구하고 문다성이 남평 開國伯의 관작을 받았다고 적고 있는 점 역시 합리성이 부족하다.¹⁷⁾ 이러한 문다성의 기록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소 불합리한 기록이지만, 신라의 官爵을 받았다는 내용을 附記함으로써 신화를 통해 역사적 사실화를 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남평문씨 씨족집단은 시조에 대한 신화적 기록과 전승을 통해 남평문씨만의 조상에 대한 신성성과 정통성 그리고 성씨에 대한 우월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Ⅲ. 전승의 맥락

우리 나라 신화는 아직까지 전하는 자료가 빈약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내용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나마 천지창조라든가 인간의 기원 그리고 만물의 원천 등에 관한 신화는 문헌에서는 찾을 수 없다. 단지 무속신화에서 지극히 단편적인 내용만이 전할뿐이다. 다행스럽게도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의 고대 국가의 시조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하는 건국신화가 현전하고 있다. 그러나 건국신화는 삼국시대의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始祖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¹⁸⁾ 이러한

었다가 명종 2년(1172)에 다시 현이 되면서 監務를 두었고, 공양왕 2년(1390)부터 화순감무가 남평감무를 겸임하였다. 조선 태조 3년(1394)에 별도로 감무를 두고 태종 13년(1413) 10월에 현감을 두었으며, 고종 32년(1896) 윤 5월 1일 남평군이 되었고, 1914년 3월 1일 廢郡되어 나주군에 편입되었다. (『나주목지』, 나주시, 1989, 31쪽.)

17) 『성씨의 고향』(서울: 중앙일보사, 1989<판 >), 69쪽 .

18) 이러한 현상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운기』, 『동국이상국집』 등 고려조의 문헌을 비롯해서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 이씨 왕조의 문헌들에 정착된 상고대 신화에서 현저하다. (김열규, 『신화/설화』, 한국일보사, 1975, 12 쪽)

점은 무속신화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창시자, 최초의 신들의 탄생과 그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신화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시조에 관한 이야기는 외면상 씨족과 민족의 뿌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의문과 답을 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이란 생명존재가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나의 생명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존재론적 문제의식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¹⁹⁾ 신화의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문씨 씨족집단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삼국시대는 씨족사회가 발전하여 이룩된 진정한 국가의 개념이 형성된 시기이다.²⁰⁾ 이 시기에 진한에서는 육촌 부족의 촌장이 협의하여 박혁거세를 시조로 내세워 신라를 세우게 되고, 병진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12촌간이 합의하여 김수로를 역시 시조로 추대하여 가야를 건국하게 된다. 마한에서도 후일 백제가 전쟁으로서 마한을 멸하고 그 토지를 정복하여 통일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최소한 국가체제가 정립된 것은 삼국시대로, 이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왕권의 세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신라에서는 朴氏, 昔氏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다가 후일에는 金氏 姓의 왕도 추대되어 왕위를 세습하게 된다.

삼국의 건설은 국가의 규모보다 작은 형태로 자생하였을 씨족이나 부족이 점차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형태를 온전히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각 씨족이나 부족에 있을법한 씨족신화나 부족신화는 국가가 창건되면서 國祖神話로 흡수되었다가 훗날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에 의해 문헌에 정착된 것이 오늘날 우리 나라의 건국신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건국신화가 국가적 규모로 전승되는 것과는 별도로, 국가 형성의 원동력이 된 씨족이나 부족은 소규모로 자생하면서 그들이 향유하는 신화나 제의는 씨족단위나 부족단위로 명맥을 유지하며 전승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흔적은 각국의 건국신화와 신라의 六姓神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이종주, 「동북아 시조신화 화소구성원리와 제양상」, 『동북아 샤머니즘문화』 소명출판사, 2000, 123쪽

20)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인간사, 1966, 523쪽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始祖神話이자 桓氏 씨족단위의 신화이며, 특히 환웅신화는 환씨시조신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명왕신화는 고구려의 시조신화이자 高氏시조신화이며, 박혁거세, 김알지, 석탈해신화 역시 신라의 시조신화이며, 동시에 각각 慶州朴氏, 慶州金氏, 慶州昔氏의 三姓氏 시조신화이다. 또한 김수로왕신화는 가락국의 시조신화이자, 김해김씨 및 김해허씨의 시조신화이며, 『삼국유사』에 기록된 신라 육성인 이씨, 최씨, 손씨, 배씨, 정씨, 설씨의 신화 역시 성씨라는 씨족집단에 의해서 향유된 시조신화, 씨족신화라 할 수 있다.²¹⁾ 이러한 점은 남평문씨 시조신화와 같은 성씨시조신화와 건국신화의 긴밀한 관련성과 동시성을 찾을 수 있다. 그 자질과 기능면에서 건국신화와 성씨시조신화의 차별성이 우선 제기될 수 있으나, 그 원류는 같다고 할 수 있다.

六姓神話는 신라 謁平, 蘇伐都利, 俱禮馬, 智伯虎, 祇沱虎珍의 여섯 개 촌락의 촌장이 하늘로부터 각각 瓢岳峰, 兄山, 伊山, 花山, 明活山, 金剛山 등의 여섯 산에 하강하였다는 神人에 관한 아주 짧막한 이야기이다. 육촌은 촌장이라고 부르는 지배자가 다스렸는데, 단군신화에서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는 것과 같은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육성신화는 진한 땅에 거주하던 여섯 촌락의 족장들이 각각의 성씨의 시조로 정착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오늘날 이씨, 정씨, 최씨, 설씨, 손씨, 배씨 등의 姓氏들이 이 육성신화에 근원으로 삼고 있다.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육촌이 있었고, 가락국 단계에 이르기 전에 九干이 추장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사료를 통해 당시 삼한시대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건국시조 이전의 신화 형태를 유추할 수 있다.²²⁾

또한 김알지신화는 박씨, 석씨에 이어 신라의 김씨 왕조를 이룬 김씨 시조신화에 해당되면서 오늘날에는 경주김씨 시조신화로 인식된다. 김알지는 나라를 세운 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혁거세

21) 『三國遺事』 1卷, 1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

22) 이지영, 『한국 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56쪽.

신화, 석탈해신화와 함께 신라의 건국신화로 자리매김한 것은 김알지의 6대손 미추이사금에 이르러 신라 왕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알지신화는 김씨의 始原을 설명하는 씨족단위 신화이면서,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국신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선상에 역사적 眞僞 여부를 떠나, 앞서 살펴본 남평문씨 시조신화 역시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조가 훗날 ‘南平開國伯’이 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씨족신화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평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에는 20여 개의 세력집단들이 독자적인 고대 연맹체를 구성, 유지해가고 있었다는 것을 고대 유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²³⁾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 남평문씨를 南平縣의 土姓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남평 일대에 확고한 지역적 기반을 유지한 남평문씨 씨족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육성신화처럼 남평이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결한 남평문씨 씨족은 그들의 역사적 당위성을 설명하는 신화를 창출하였을 것이고, 신화를 통해 여느 씨족과의 변별성을 강조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제,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평에 거주하는 씨족이 존재하는 한 신화는 자멸하지 않고 전승의 고리를 이을 수 있었을 것이다. 비록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초기의 역사를 설명할만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오늘에까지 전승되는 시조신화를 통해 충분한 개연성을 갖는다. 다만,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박혁거세신화처럼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후손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기억과 조선 후기 문중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된 것으로 파악된다. 고대로 소급해 보면, 각각의 씨족집단에는 각각의 씨족신화가 존재해 그들을 결속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강력한 씨족이 국가체제로 정비되면 그 씨족의 신화는 자연 건국신화로 자리 매김 한다. 그러나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여타의 씨족신화는 전승집단에 의해 최소한의 신화로서의 기능과 힘을 유지하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 씨족신화는 해당 씨족이 소멸되지 않은 한

23) 『니주시의 문화유적』, 니주시·목포대박물관 1999, 19 쪽

영원한 신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는 건국신화는 특정 씨족집단의 씨족신화가 발전하여 정착·전승되었으며, 씨족신화는 씨족신화대로 최소한 역사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전승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건국신화는 王業의 사실이 그 주제가 되지만, 씨족신화는 始祖의 영웅적인 神異性에 역점을 두고 있어 차이점이 드러난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혁거세신화가 고대의 건국신화에서 오늘날에는 경주박씨 시조신화로 정착되어 전승되고 있고, 김알지신화는 씨족신화에서 오늘날에는 경주김씨 시조신화로 정착, 전승되고 있다. 이외에 각기 신화를 가지고서 오늘날 전승되고 있는 창령조씨, 충주어씨, 평강채씨, 파평윤씨, 달성배씨, 하음봉씨 시조신화 등은 시대를 소급해 보면 씨족신화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남평문씨 시조신화에서도 이러한 생명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지역적인 기반 위해 형성, 유지되고 있고, 그 근원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점 등은 고대 씨족집단의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다. 상고시대에서의 씨족사회나 부족사회는 오늘날과 같은 혈연에 의한 姓의 개념이 미약했다. 신라의 육성신화의 말미에 노례왕(유리왕) 9년(AD.32)에 비로소 여섯 부의 명칭을 고치고, 또 여섯 성을 주었으며, 지금 풍속에는 중흥부를 어머니로 삼고, 장복부를 아버지, 임천부를 아들, 가덕부를 딸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는²⁴⁾ 기록이 보인다. 육부에 부모자녀형제 등 六氏族으로 규정한 것은 가족적인 親和關係를 비유한 것일 뿐,²⁵⁾ 따라서 직접적인 혈연집단임을 말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을 부로 고치면서 각각의 성씨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진정한 혈연의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도가 혼재된 것으로 해석된다.²⁶⁾ 오히려 혈연에 의한 씨족집단은 후대에 올수록

24) 髙禮王九年，始改六部名，又賜六姓。今俗中興部爲母，長福部爲父，臨川部爲子，加德部爲女，其實未詳。(『三國遺事』1卷-1紀異 新羅始祖赫居世王-)

25) 김두현,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43쪽.

26) 성을 최초로 갖는 집단은 왕실, 귀족과 같이 성이 곧 骨, 族과 관련되면서 최상층 지

성씨라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확대해 보면 남평문씨는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씨족집단이 시대를 거치면서 점차 혈연 중심의 성씨집단으로 자리 매김 되었고, 오늘날에는 혈연 중심의 성향이 훨씬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이를 증거 할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으나, 근래의 문중 조직의 역할과 함께 시조신화에 대한 인식을 통해 그 역사적 가능성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설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실체이다. 설화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이며 역사적 사실을 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실체이다.²⁷⁾ 설화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보다, 그러한 설화 자체가 역사로 인식되고 이해되는 것이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남평문씨 씨족집단에서만 신성시되는 시조에 관한 신화이다. 건국신화에서 드러나는 天降神話의 상징적 구도가 남평문씨의 시조 탄생에 그대로 수용되어 있고, 시조의 연원은 고대로 소급된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씨족집단에 의해 신화로서 그 기능을 지속하고 있다. 비록 남평문씨라는 특정 성씨 집단에 한정되어 정착되었지만, 시조신화를 통해 건국신화적 자질이나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신화가 왕권의 정통성과 국가적 권위를 세우는데 핵심적 구실을 한데 비해서 신화가 그러한 구실을 서서히 역사와 제도 및 종교에 물려주게 되는 시대가 또한 중세이다. 문자 기술이 보편화되고 외래에서 유입된 문명 종교를 국교로 삼았던 이 시대에는 신화가 되살아나더라도 신화적 언술로서의 요건을 온전히 갖추기 어려웠고 아무래도 역사나 전설과 같은 형태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²⁸⁾ 이러한 점에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서사분석을 통해

배집단에서 비롯되었다. 6부성을 비롯한 통일신라시대의 성씨 취득이 통일 과정과 그 후 국가체제의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며, 그것은 또한 각 족단의 세력 변동을 단계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 집단의 성씨 취득과 등장은 비단 6부성에 그치지 않고 신라 하대에 갈수록 현저히 많은 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은 6성이 일시에 사성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계기적임을 시사한다. (이수건, 「한국 성씨의 유래와 종류 및 특징」, 『새국어생활』제1권 제1호, 1991 봄, 27쪽)

27)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29쪽.

살펴보았듯이, 역사시대에 적합한 곧 역사나 전설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신화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신화라 해석할 수 있다.

신화는 기록되면서부터 본래의 원형에서 변질을 초래하며, 후세사람들은 기록된 역사에 일부 전승되는 신화만 접하게 된다. 결국 원형적인 신화는 점차 소멸과 변이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혈통을 중심으로 신비한 요소를 간직한 채 신성화를 피하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현실 이념에 맞게 합리적인 형태로 점차 변화되어 오늘까지 전승력을 확보하고 있다. 엄밀히 말해 건국신화는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의 소멸로 인해 죽은 신화이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신화이며, 문중·후손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신화이다.

고대의 신화는 왕조나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 단위의 건국신화 외에도 씨족단위의 신화 전승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씨족신화는 시대를 거처오면서 진정한 혈연을 중심으로 한 성씨의 씨족집단에 의해서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전통사회의 결정체인 성씨제도, 族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에까지 족보와 같은 문헌기록을 통해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전승력을 확보하고 문중, 씨족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거시적인 전승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IV. 역사화 과정과 그 의미

신성시되는 이야기는 초월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허황함에 의한 괴기성이 아니라 전승자가 깊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신비롭게 미화된 신이성을 지녀야 한다.²⁸⁾ 신화가 神聖性이라는

28) 천혜숙 외 공저,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서울: 월인, 2000), 69쪽.

29) 임제해, 『한국·일본의 설화연구』(인하대 출판부, 1992), 27~8쪽.

고유 영역을 확보해야만 신화로서 기능한다는 것은 신화의 전승자가 신화를 진실되고 신성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等價的 관계이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족보가 간행된 이래 현재에까지 그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승자인 남평문씨 씨족집단이 시조신화를 神聖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족보에 한하지 않고, 시조 문다성에 대한 신성화와 聖域化 작업은 근래에 들어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이는 그만큼 신화를 인식하는 전승자와 전승력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남평문씨족보는 영조 7년인 申亥譜(1731)가 발간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³⁰⁾ 1995년에 발간한 『남평문씨대동보』가 가장 최근의 것이다. 앞서 언급한 현종 12년인 1846년에 간행한 南平文氏族譜를 살펴보면,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삼우당실기」와 「姓苑」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文氏封貫事蹟’ 부분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간행한 족보를 살펴보면, ‘南平文氏始源記’에 시조신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신화 속에 나오는 文巖과 長子池 그리고 文巖閣의 사진들을 수록하여 신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려고 했다. 두 족보는 150여 년의 시간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조에 대한 기록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최근의 족보가 시조신화에 대한 신뢰성과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전남 나주시 남평면 풍림리 사자산 아래에는 시조의 탄강지인 文巖이 있으며, 이 문암을 보호하기 위한 ‘文巖閣’이 조성되어 있다. 문암각은 근래에 기존의 건물을 헐고 전통적인 기와와 목재로 다시 축조하여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 32호 지정되었다. 문암각 옆에는 ‘文巖閣落成紀念碑’가 서 있고, 그 옆으로 문다성의 시조묘가 호화롭게 단장되어 있다. 그리고 시조묘 아래로는 長者池가 길게 흐르고 있으며, 장자지 앞 들녘에는 장연서원이 있다. 장연서원

30) 辛亥譜(영조 7년, 1731), 戊子譜(영조 44년 1768), 壬子譜(정조 16, 1792), 丁亥譜(순조 27년, 1827), 丙午譜(현종 12년 1846), 癸丑譜(철종 4년, 1853), 庚午譜(고종 7년 1870), 乙未譜(고종 32년 1895), 壬寅譜(광무 6년, 1902), 庚申譜(1920), 丙寅譜(1926), 甲午譜(1954), 丁酉譜(1957), 甲辰大同譜(1964), 壬戌譜(1982), 大同系乘譜(1988) (『성씨의 고향』, 700쪽)

은 시조를 비롯한 선조의 위패를 모시는 곳으로 조선 후기 이래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리고 인근에 ‘武成公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김알지신화에서 알지가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어 계림과 알지의 태를 풀 때에 가위를 놓았던 돌, 祠堂 등이 오늘날 聖所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창령조씨 시조인 조계룡과 하음봉씨의 시조인 하봉우는 각각의 후손들에 의해 시조가 태어난 곳을 聖域化 하고 있다.³¹⁾ 이와 마찬가지로 남평문씨도 시조신화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려는 듯 文巖, 始祖墓, 長者池, 書院, 遺墟碑 등을 조성하여 오늘날 후손들에게 聖所로 거듭나고 있다. 남평문씨처럼 시조신화를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내용물이 이렇게 한 세트가 되어 표현된 경우는 드물다 하겠다.

조선후기 이래 유교문화의 진수이며, 전통사회의 적극적인 產物인 족보는³²⁾ 남평문씨 씨족집단이라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기록의 독자성 때문에 무한한 신화를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족보가 철저한 유교주의적 崇祖觀念의 산물인 만큼, 여타의 족보는 신화나 전설의 존재양식을 부정하고 있어 설화문학적 측면에서는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남평문씨 족보를 비롯한 문헌자료에는 시대적 분위기를 古代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착각이 들만큼, 남평문씨 시조에 대한 기록들은 구체적이며 절실하다.

먼저, 『남평문씨대동문헌록』을 보면, 남평문씨 시조에 대한 기록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조의 생몰 연대와 벼슬길에 오르신 사적과 배위와 묘소는 일찍이 문헌의 증거가 없으므로 기록치 못하였으니, 후에 그 기록이 없는 것은 대개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근자에 상고한 즉 각처에 간혹 초한 족보와 인출한 족보가 있는데 동경사를 상

31) 줄고, 『한국 성씨시조신화의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82~83쪽.

32) 서양인의 계보가 ‘나’를 중심으로 하여 ‘나’의 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족보는 하나의 뿌리에서 수 없이 뻗어나오는 가지의 하나 하나를 찾듯이 씨족의 시조를 기점으로 하여 그의 자자손손을 세대와 계파를 밝혀가며 찾자는 데에 그 주목적이 있다. (송준호, “한국에 있어서의 가계기록의 역사와 그 해석”, 『역사학보』 87집, 역사학회, 1980, 101 쪽)

고한 즉 시조가 신라 자비왕 15년(서기 474, 신라 20 대왕)에 말동부리현에 나시어서 벼슬이 삼광상중대부 상주국 대아손 대원수 남평개국백이며, 시호는 무성이라 하고 또 부인 김씨라 하였는데, 정묘년 가을 경주에 가서 동경사를 상고한 즉 처음부터 실린 것이 없으니 위에서 말한 것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한말인지 미상하다. 이대로 아직 기록한 것은 뒤 사람이 상고할 수 있도록 함이다.³³⁾

신화가 역사를 대신하듯,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손들은 시조의 연원을 고대로 소급하여 남평문씨의 유구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다. 곧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씨족 초기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는 장치인 것이다. 비록 역사적 시간과 장소가 명기되어 있으나, 始祖에 의해서 남평문씨는 원초적인 태초의 시간으로 환원되며, 시조신화는 그 당시의 원초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후손들이 시조신화를 근거로 시조에 대해 讚한 글을 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송암 이노가 찬하여 말하기를, 석함(석함)이 하늘에서 떨어져 기이한 사람이 내렸도다. 근원이 깊고 공적이 두터워서 잠불(벼슬)이 대대로 붙었으며 조정옥서에 구작과 봉작이 찬란하다. 융성하고 영체한 운수는 후세에 전하는데 있을 것이다.

경암 동도시에 가로대, 하늘이 신인을 내릴 때 석함을 전하여 우리 문씨의 역 천년을 열었도다. 벽상공신의 호는 산하 같고 고려에 북야공의 어짐 별과 북두 같도다. 선조의 지극한 은혜는 후손들에게 넉넉히 주셨는데 후손들은 무엇으로 앞을 빛낼 것인가 연원의 족보를 닦아 책임하니 내 몸을 돌아볼 적에 송구스러울 뿐이로다.³⁴⁾

松巖은 외손이며 司諫院이라 적고 있으며, 敬庵은 20代孫이라 기록되어 있다. 시조의 성스러운 탄생이 있었기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평문씨가 번성하고, 오늘날의 자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나아가 후손들까지도 영원하다는 것이다. 시조가 있었기에 씨족이 번

33) 『남평문씨대동문헌록』 권1, 1990, 5 쪽

34) 松巖李魯贊曰 石函川墜 異人斯降 源深績厚 簪紱世絳 台塔玉署 燦爛圭珪 隆替之數 在後宜講 敬庵東道詩曰 天降神人石函傳 啓吾文氏億千年 山河壁上功臣號 星斗廳中僕射賢 先祖至恩能裕後 後孫何德可光前 淵源一譜修而負 回顧孱躬凜凜然 (『남평문씨대동문헌록』 권1, 1990, 1~2쪽.)

영하고 그 영속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남평문씨에만 제한되지 않고, 경주김씨,³⁵⁾ 창녕조씨에서도³⁶⁾ 확인된다. 오늘날 김알지신화는 신라 왕조신화로 규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정 씨족집단인 金氏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김씨가 김알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 김씨 성을 가진 무수한 사람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연원을 금계에서 탄생했다는 신이한 출생에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평문씨 역시 시조의 출생에 집중해 남평문씨만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다.

남평문씨 후손들은 시조를 찬한 글에 머무르지 않고, 1777년에 건립된 장연서원과³⁷⁾ 시조 사당인 ‘尙德祠’ 지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보존되고 있어 시조에 대한 성역화는 훨씬 강화된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역사가 되고 있다. 또한 武成公遺墟碑를 세워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明文化하고 있다. 三光先生祠堂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적혀 있어 그 일부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남평 동쪽에 지석강을 지나 못이 있어 장자못이라 하니 위에 있는 산이 춤추는 나래처럼 내려와서 중엄하게 머물렀으므로 이름 역시 이와 같다. 이 산의 발치에 암석이 높이 솟아 못 위에 임해 있는 것을 문암이라 하니 신라 개국백 남평 문공 휘 다성이 실로 이 땅에서 나셨다. (중략)... 그 후로 명현과 顧德이 역사에 끊어지지 않으니 경정공, 충숙공, 순평공, 삼우당 네 선생 같은 분이 더욱 현저한 분들이다. 대개 공이 앞에 기틀을 열고 제현들이 뒤에 크게 이어서 세세로 그 덕을 퍼었으니 이는 대덕한 분은 반드시 그 탄생함이 다르다. 덕이 두터우면 광명이 흐른다는 말을 더욱 그 거짓 아님을 알겠다. (중략)... 이 이치를 미루어 보는데 남평현이 산수의 淸淑한 기운이 진실로 반드시 천지 음양의 화기를 모아 간직하였고, 또한 필연코 蟠結되어 재덕있는 민을 강생시켰으니 문씨 일문이 홀로 창명한 기운이 모

35) 慶州金氏의 기원은 大輔公 김알지에서 시작한다. 金闕智는 서기 65년 신라 탈해왕 9년 서쪽 始林(鷄林)의 나무 끝에 걸려 있던 금계(金櫃)에서 태어났다. 탈해왕은 이를 기뻐하여 성을 金으로 하사했는데, 이에서 경주김씨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慶州金氏太師公派大同譜』(서울: 학문사, 1999), 15쪽)

36) 줄고, 「창녕조씨 시조신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 49집, 2002, 10쪽.

37) 장연서원건립이 정조 연간(서기 1777년, 단기 4110)터니 고종 신미(1871)에 당일 제 횡령하여 廢院이라가 기후에 自成均館으로 至于各郡鄕校히 連署發通하야 구원지에 복설하여 춘추위필향지하니 迺유림주관이요. 而子姓守護也라. (『남평문씨대동문헌록』 권1, 1990, 113쪽)

이어 빛나는 일성같이 흐르고 우뚝함을 함께 하였으니 옛과 지금을 보건데 장하고 성하지 않으랴.³⁸⁾

남평문씨 시조 탄강지인 문암 외에 문암각 상량문에도 “어량처 동방에 처음 문자의 성을 얻게 되었으니 암석의 이름이오 새롭고 남평에 장자인을 강생시켰으니 물의 이름 아직 남았더라 액호를 다니 더욱 아름답고 지명으로 이해 좋은 이름 내렸네”³⁹⁾ 로 시작하여 위의 내용과 상통된다. 모두가 誕降한 시조로부터 存在 연원을 찾고 있으며, 그로 인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文巖과 長者池에 이어 書院을 통해, 단지 신화 속에 존재하는 시조가 이제는 역사적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으며, 현재적 의미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의미까지도 함축한다. 이를 인식하는 후손들은 역사인식까지 가미되어 각별하다.

특히 근래에 새롭게 조성된 시조묘에서 매년 양력 3월 20일 모든 후손들이 모여 정기적인 의례를 執典하고 있는데 이를 壇祭라 한다. 단제를 모신 지는 그리 길지 않다. 과거에는 시조묘가 없었다고 하는데, 대략 20여년 전에 시조묘를 찾아 새롭게 단장한 것이라 한다. 이렇게 시조묘가 조성되면서 단제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이다.⁴⁰⁾ 그리고 매년 음력 9월 中丁日날 장연서원에서 시제를 모시고 있다. 오늘날 씨족집단에서는 해당 시조신에 대한 의례를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를 時祭, 墓祭⁴¹⁾라 한다. 삼국시대 이래 건국 시조신에 대한 제의가 문헌상으로만 존재하고 있음에 반해, 성씨 시조신에 대한 제의는 시제라는 제의 행위를 통해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연 번창한 가문일수록

38) 『남평문씨대동문헌록』 권1, 114쪽.

39) 『남평문씨대동문헌록』 권1, 116쪽.

40) 문양근 장연서원관리위원회 위원장 구술(2004. 2. 18 현지 면담조사)

41) 時祭는 현재 자기를 기점으로 5대조부터 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다. 기제사는 집안에서 그리고 밤중에 4대조까지 모시지만, 시제는 묘소에서 직접 거행되며, 주로 낮에 모셔진다. 그리고 성씨마다 시제 모시는 제일은 각각 다르지만, 주로 10월 상달을 넘기지 않는다.

제의는 성대하게 베풀어지며, 유명한 懸祖일수록 많은 후손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후손들은 제의를 통해 씨족의 근원인 문다성을 기리는 것은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祭典의 구술상관물임을 말해준다. ‘의례의 집전은 곧 신화의 연출이고, 우리는 의례를 통해서만 신화적인 삶을 체험할 수 있듯이’⁴²⁾ 후손들의 정기적인 의례로 인해 그 씨족집단은 신화적인 삶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신은 인간에게로 오고 인간이 신에게로 가는 중간지점에 신화의 장이 있다. 신화의 장에서 신과 인간은 만나 原一性을 회복한다. 원일성을 회복하는 행위는 祭儀이며, 신과 인간이 만나는 중간지점은 곧 제의의 장이기도 하다.’⁴³⁾

곧 장연서원과 상덕사, 시조묘는 제의의 場으로써 의례를 통해 原一性을 회복하고 있으며 나아가 조상숭배의 발현으로 굳어져 역사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아울러 시조신화는 신앙적 기반을 바탕으로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은 남평문씨 시조신화의 진실성과 신성성을 확보하는 구심력이 되어, 후손들은 다른 씨족집단과는 변별되는 자긍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씨족의 근원을 시조에서 찾고 있으면서 면면히 이어온 조상에 대한 제의를 통해 씨족의 정통성과 역사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결코 古代的 산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보유하면서 전승되고 있다. 곧 족보가 간행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의 꾸준한 역사화 작업은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진정한 신화로, 남평문씨 시조는 역사에 의해 역사화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전승은 같은 것의 되풀이가 아니라 반드시 변화를 내포한다. 일정한 형식과 기본적인 구조는 지키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사는 시대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이러한 內的으로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면서 역사문화적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서 시대적 事實에

42) Joseph campbell(이윤기 옮김), 『신화의 힘』(서울: 고려원, 1996<2판>), 342쪽.

43) 황폐강, 「민속과 신화」, 『한국민속학』 제8집, 민속학회, 1975, 108쪽.

부응하며 신화인 동시에 역사로서 오늘날 전승되고 있다.

V. 맺음말

이상, 남평문씨 시조신화를 대상으로 서사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오늘날 현존하기까지 전승의 맥락 그리고 역사화 과정의 면면을 검토하였다.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문다성의 탄생, 성장 그리고 得姓하기까지의 일련 이야기로, 남평문씨 씨족집단의 근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신화 내용에서 시조의 탄생은 신이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성씨집단의 출현과 변별성을 의미한다. 특히 하늘이 제시해주는 것에 따라 성씨로 삼고 있는 것은 절대불변의 성향과 새롭게 형성된 문씨 씨족집단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설화는 그 자체로 역사적 실체라 하였듯이, 김알지신화는 김씨의 始原을 설명하는 씨족단위 신화이면서, 신라 초기의 역사를 대변하는 건국신화이다. 그러나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김알지신화처럼 건국신화로 발전하지 못한 채, 후손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기억과 조선 후기 문중 기록과 유적을 통해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지역적인 기반 위해 형성되고, 그 근원을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것은 남평 일대를 중심으로 한 씨족 중심의 신화였으며, 남평 일대를 지지 기반으로 세력을 떨친 씨족 집단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남평문씨 시조신화는 조선 후기 족보가 간행된 이래 현재에까지 그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남평문씨 시조신화가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려는 듯 文巖, 始祖墓, 長者池, 書院, 遺墟碑 등을 조성하여 오늘날 후손들에게 聖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러한 시조 문다성에 대한 신성화와 聖域化 작업은 특히 근래에 들어 오히려 강화되고 있기까지 하다. 그만큼 신화를 인식하는 전승자와 전승력이 확보되어 생명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남평문씨 시조

신화가 化石화된 신화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화적 기능을 보유하면서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신화가 역사가 되어 이제는 역사화의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덧붙여, 남평문씨 시조신화에 관한 구전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평을 중심으로 그 일대의 현지조사를 통해 구전자료의 의미분석과 함께 문중 외에 지역민들의 시조신화에 대한 인식과 대립된 시각 등을 밝혀보는 작업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남평문씨 시조신화, 성씨시조신화, 역사화 과정

K C I

< 참고 문헌 >

- 『三國遺事』, 『高麗史』
『南平文氏族譜』, 『南平文氏大同文獻錄』
『한국인의 족보』, 일신각, 1977.
『한국성씨대관』, 창조사, 1971.
『나주목지』, 나주시, 1989.
『나주시 문화유적』, 나주시·목포대 박물관, 1999.
김광순, 『한국구비전승의 문학』, 형설출판사, 1988<2판>.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0,
김열규, 『신화/설화』, 한국일보사, 1975,
서해숙, 「창령조씨 시조신화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49 집, 2002.
서해숙, 『한국의 성씨시조신화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2.
이종주, 「동북아 시조신화 화소구성원리와 제양상」, 『동북아 샤머니즘문화』,
소명출판사, 2000.
이지영, 『한국 신화의 신격 유래에 관한 연구』, 태학사, 1995,
임재해, 설화 자료에 의한 역사연구의 방법 모색, 『설화와 역사』, 집문당,
2000.
천혜숙 외 공저,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최동, 『조선상고민족사』, 인간사, 1966,
표인주, 『남도설화문학연구』, 민속원, 2000.
허경희, 『한국씨족설화연구』, 전남대 출판부, 1990.
황폐강, 「민속과 신화」, 『한국민속학』 제8 집, 민속학회,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Myth of The great grand father in Moons from Nampyeong

Seo, Hae Suk

I analyzed the descriptive structure of the Father Myth, and saw over the literary and historical meaning about family name Moon from Nampyeong which existed these days.

The Father Myth about family name Moon from Nampyeong explained “Mun Da-Sung”'s birth, growing and foundation of clan society. The father's birth meant appearance of a clan society and difference beyond novelty, hero sides.

The Father Myth about family name Muni in Nampyeong continued through the descendants' memory and family record in the late stage of Chosun. The Father Myth was about a clan society, instead of history about a clan society in NamPyung. Also, the father “Mun Da Sung” is sacred and continued these days.